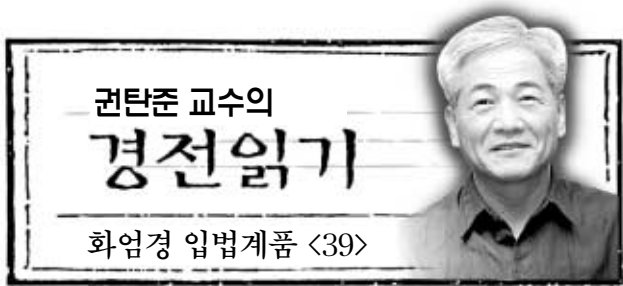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간 선지식은 남쪽의 무량도살라(無量都羅)라고 하는 큰 성에 있는 변행(遍行)이라고 하는 출가한 외도이다. 변행 외도에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의 문을 성취하였으며, 의지한 데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힘을 성취하였고, 넓은 문 받아바라밀다를 성취하였다.”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갖가지 방소(方所)와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행과 이해로 온갖 길에 나고 죽나니 이른바 하늘 길, 용의 길, 아차의 길과 건달바, 이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지옥, 축생의 길이며, 열라왕 세계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길이다. 여러 가지 조건에 빠지고 이승(二乘)을 믿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과 갖가지 지혜의 문으로 이익되게 한다. 이른바 모든 세간의 갖가지 기술을 연설하여 온갖 공묘한 기술다라니지혜를 갖추게 하며,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방편(四攝法)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길을 구족하게 하기도 한다. 모든 바라밀다를 말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로 회향케 하기도 하며, 보리심을 청정하여 위없는 도의 뜻을 잃지 않게 하기도 하며, 보살의 행을 청정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게도 한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 따위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일을 말하여 나쁜 업을 싫어하게도 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착한 뿌리를 심으면 온갖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 말하여 환희한 마음



### 변행 외도의 범문

##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보살행 강조

## 세간 관찰하는 삼매 성취해야 중생교화

을 내게도 한다. 모든 여래, 응공, 정등각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좋아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몸을 찬탄하여 여래의 가릴 수 없는 큰 위력의 몸을 구하게도 한다.

선남자여, 이 도살라성 중의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말하지만, 그 중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사실대로 수행하게 한다. 선남자여, 이 성에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처럼 염부제의 여러 성종과 도

시와 마을의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이익되게 하노라.

선남자여, 염부제에 있는 96종 외도들이 제각기 아똥한 소견으로 고집을 세우면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부시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염부제에서와 같이 다른 사천하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이 사방의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바다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 · 갖가지 법문 · 갖가지 말 · 갖가지 말로써 법을 말하여 이익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만을 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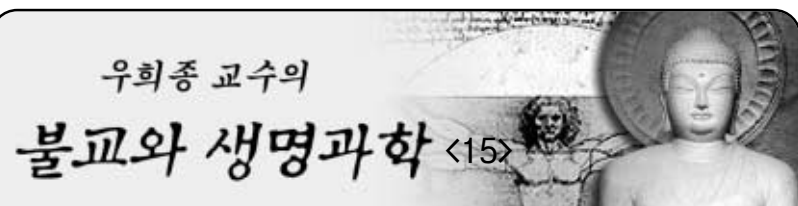
이와 같이 변행 외도가 설하고 있는 법문은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관한 것이다. 그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과 장소로 가서 가지가지의 형상과 행(行)을 나타내 보인다. 그의 이름이 변행(遍行)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세계로 널리 나아가 중생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교화하고 이롭게 하여 그들을 한없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변행 외도가 살고 있는 성의 명칭이 ‘무량도살라도살라: 기쁨의 출생’이다.

변행 외도가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三昧)를 터득하고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無依無作) 신통력을 성취하여 보문(普門)의 받아바라밀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구애됨이 나 사로잡힘이 없이 세간의 일체를 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방 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 법문, 형상, 말 등으로써 법을 설하여 그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살도는 불교라고 하는 특장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릇된 삶을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요체(要諦)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습이나 형식, 색깔 등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변행 외도가 외도(外道)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무수한 세계의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외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불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를 내세우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수한 비행을 돌이켜 볼 때 변행 외도의 삶은 종교인의 삶의 올바른 지평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창조와 진화, 그리고 수용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미 유전자 수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고, 진화론이란 간단히 말하여 네(환경)와 나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듯 최선의 모양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지닌 특정 조건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진행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체의 진화는 회귀적 모양이라는 우리의 관념적 기준이나 결과론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의 흐름 속에서 빚어진다. 점이다. 불자라면 굳이 생물학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하나님, 여호와, 길(道)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부르며 있는 삼라만상의 근원, 바탕과 이로부터 비롯된 생명체의 관계를 어느 위치에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다. 생명, 신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생명체는 창조되어진 것이고 생명체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이다. 불교나 다른 대부분의 종교도 비록 각자의 고유한 단어로 표현할지는 몰라도 진리나 법, 생명 이외의 방법으로 진정한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도 단지 흙이나 사대(四大)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종교란 긴 시간 동안 역사적, 문

## 종교, 가르침은 같아도 관점은 달라

## 일상속 온전하고 평등한 삶 이뤄져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창조론을 이야기 하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불자들이 많은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유일신의 창조론에 익숙한 분들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과과학 하는 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론에 익숙한 사람이나 혹은 불교적 입장에 익숙한 사람이나 상대에 대한 피상적 지식만 지니고 제대로 된 이해는 없이 열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과연 창조론과 소위 다양한 우리의 모습이 한물건, 한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고정된 실체 없이 변화해 간다는 불교적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일까.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가 각각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진리, 생명, 법(法), 불성(佛性), 한마음(一心), 한물건,

회귀 목적의 모양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가르치는 궁극적 가르침은 같아도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많은 다른 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진화론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나의 이해나 공감감을 통한 수용이란 것은 결국 나의 아상(我相)에 맞는 것만 수용한다는 것이기에 진정한 불제자라면 종교나 학문적 관점을 떠나 나와 나는 이대로 온전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역학교실



앞에서, 씩가모니는 ‘생사라는 것이 본래 없다. 그러나 생사는 애당초 문제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생사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했다. 그런 이치를 대승불교에서는 무생법(無生法)이라고 일컫는다. 더 온전히 말한다면 무생무멸법(無生無滅法)이 되었고 실제로 경전에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같은 뜻의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생겨남이 없으면 사라짐 또한 자동적으로 없으니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아니, 분명히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없어 지는데, 어찌하여 생겨남과 없어짐이 없다는 말인가? 모든 존재를 개체로서만 보면 그 운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생겨남과 없어짐을 꼽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 얼마간 지속되는 기간과 양상이 있고, 그 동안 운동 지지고 북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의 개체로서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절박하게 여겨지게 마련이다. 무생물이나 하급 생명체와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사람에게서는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큰스님을 흔히 하시는 말씀이, ‘생사가 근본 문제이니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남자의 본분사’라고 한다. 생사가 모든 존재의 너무나 자명한 운명이고 절실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의 개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단위로 해서 보면 생사라는 게 본

### 선의 세계 ⑫

### 직지인심-11

로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물을 마시면 컵에 담겼던 그 물은 없어지지만 그것이 소변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면서 유전(流轉)한다.

그리고 이철수씨의 관화 ‘백장암 가는 길에’를 보면,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부도가 서있고 그 위에 구름이 한 점 떠있다. 그 아래에 이철수씨가 써넣은 글귀는 다음과 같다. ‘탑, 비는 막물이 되기까지야 고생 아닌가? 환할 날이 있으리니 참고 지내시게.’

## 마음 잘 들여다 보면 생사문제 풀린다

레 없다고 했다. 리틀북이라는 영화를 보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잔을 내던지는 장면이 있다. 찾잔이 깨져 바닥에 흩어지고 잔 속에 들어있던 차도 쏟아진다. 쏟아진 차를 걸레로 훑쳐 하수구에 짜버리고 찾잔 조각을 주어 쓰레기통에 버리면, 찾잔과 차는 정녕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인가? 그 찾잔과 차만 가지고 보자면 그렇다고 해야 하겠지만 세상 전체

길에’를 보면,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부도가 서있고 그 위에 구름이 한 점 떠있다. 그 아래에 이철수씨가 써넣은 글귀는 다음과 같다. ‘탑, 비는 막물이 되기까지야 고생 아닌가? 환할 날이 있으리니 참고 지내시게.’

##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그리움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 (2) **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 (3) **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 (4) **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

## 격월간 「불교와 문화」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 불교 재기지, 수행, 무엇이 문제인가 - 그 현주소와 전망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계 문화 잡지인 격월간 「불교와 문화」로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념 행사를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초청 법사**

1. 한국불교 재가자의 간화선 수행, 가능한가  
: 박영재(선도회 지도법사, 서강대 자연과학부 학장)
2. 재가 수행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 및 전망  
: 미산 스님(조계종 사회복지부, 백양사 참사수행원장)

**특집호 증정 및 대화회**

10월 1일(수) 오후 2시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불교와 문화』 9/10월 특집호를 증정하며, 강연회 후 모든 참석자를 위한 대화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가 수행에 대해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회자에게 미리 메모를 전해 주시면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교 잡지 전시회**

· 제목 : 불교 잡지로 본 불교문화의 승결과 무늬(展)  
· 해방 전후 불교계에서 발간된 70여 점의 불교 잡지 전시  
· 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월 7일(1주일간)  
· 장소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및 로비

(제)대한불교진흥원 격월간 「불교와 문화」, www.kbbpf.org 문의 : 02-719-1855, 3층 법당 02-703-0108